

첨단 2산단 임대부지 '독식' 논란

LH, 8개 업체에 절반 이상 몰아줘 용지난 기업들 "땅 투기 의혹" 제기

광주지역 기업들이 심각한 공장용지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LH가 첨단산단2단계(첨단2산단) 임대단지를 일부 기업에 몰아줘 용지난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 전남본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LH는 광주 첨단2산단 장기임대단지 58만 4431㎡ 부지를 42개 업체와 가계약했다. LH는 조만간 이들 업체와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문제는 임대단지 58만4431㎡(17만 7000평) 중 55.3%인 32만3000㎡(9만8000평)를 8개 업체가 독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A사는 2개 필지 7만1000㎡(2만1500평)를, B사는 1필지 4만8000㎡(1만4500평)를 임대했다. 나머지 6개 업체도 3만1000㎡(9400평) 이상 계약했다.

이처럼 8개 업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면서 특히 시비와 함께 땅투기 의혹마저 일고 있다.

국가산단 임대단지는 중소기업들의 초기 투자를 줄여주기 위해 연간 평당 2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고 용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5년간 임대해 사용한 뒤 분양 전환한다.

이같은 취지에 따라 10년 전 공급한 첨단1산단은 많은 중소기업들에

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체당 3300㎡(1000평)~1만6500㎡(5000평) 규모로 공급했다.

하지만 첨단2산단은 8개 업체에 10~20배 이상 넓은 면적을 제공하면서 가격이나 용지난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LH가 일부 업체에 임대단지를 몰아준 것은 조성 당시 두차례 공고를 했음에도 임대실적이 저조하자 사업비 회수와 미분양 해소를 목적으로 자본력과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에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블록 단위로 임대하면서 벌어졌다.

소규모로 분할 임대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 행정·재정적 지원도 복잡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이 같은 임대 방식은 초기 경영자금에 부족한 첨단업종의 중소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용지를 공급하겠다는 첨단산단 조성 취지를 벗어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용지를 임대해 일부만 사용하고 묵혔다가 5년 뒤 분양받아 되파는 방식의 '투기'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첨단산단에 공장용지를 몰씩 중인 한 중소기업 대표는 "임대단지는 초기 자본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에게 제공돼야 한다"며 "본계약 체결 전에 임대용지 면적 조정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정업체에 과도하게 용지가 임대됐는지 검토해보겠다"며 "LH와 용지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선글라스 20% 할인판매

1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패션잡화 매장에서 여성고객들이 패션 필수 아이템인 선글라스를 살펴보고 있다. 백화점은 1층 특별매장에 '명품 선글라스대전'을 열고 쉐린스, 에스까다, 막스마라, 지방시, 비비안웨스트우드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을 20%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은행 금융민원 크게 줄었다

금감원 평가 2등급...우수 실적 거둬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금융감독원의 '2011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에서 2등급의 우수실적을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광주은행은 지난 2010년 5등급에서 3단계가 상승, 민원발생이 현저히 줄었다.

금감원 민원평가 자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2010년 196건 대비 2011년 70건이 감소한 126건으로 약 3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2010년 7월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보호실을 신설하고 민원발생시 영업점 경영평가로 반영해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대폭개선했다.또 전 직원에게 소비자보호에 대한 의식전환을 생활화' 결과에서 2등급의 우수실적을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광주은행은 지난 2010년 5등급에서 3단계가 상승, 민원발생이 현저히 줄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삼성도 정유시장 진출

6월부터 휘발유 판매...석유공급 과점 깨질듯

4대 정유사가 과점하던 휘발유 공급시장에 삼성토탈이 신규 사업자로 참여한다.

또 정유사가 주유소에 전량 구매를 강요하면 불공정거래로 간주, 과징금을 물린다. 전자 상거래용 수입물량은 세계 혜택을 줘 확대한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부처는 5개 정부 부처는 합동으로 19일 과전 정부차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삼성토탈이 국내 다섯번째 휘발유 공급사로 참여하게 됐다.

삼성토탈은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하기로 하고 현재 석유공사와 물량과 가격 등 세부 공급 조건을 협의 중이다.

연합뉴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가 제안하는 봄 나들이 필수 재킷 한번 입어볼까

본격적인 나들이 시즌이다. 프랑스 전통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에서 봄 산행 필수 아이템을 제안했다.

고어텍스 등 고성능 소재가 아니라더러도 바람막이 재킷은 필수다. 밀레는 19만~23만원대의 재킷을 내놓았다.

밀레의 LD 엑스퍼트 윈드재킷(19만원)은 신축성이 뛰어나고 초경량으로 무게 또한 가볍다. 작은 부피로 접을 수 있어 날씨에 따라 휴대하고 다니기도 편하다.

엠트랙 씬머 드라이엠티 재킷(23만원)은 후드 탈부착이 가능하고 방수도 된다.

신발은 통기성이 뛰어나고 가벼운 트레킹 슈즈가 좋다. 단 산에 갈 때는 접지력이 좋은 신발을 골라야 한다. 산행 중 비가 내리면 등산로가 갑자기 미끄러지기 때문이다.



레인부츠가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르면서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도 기능성을 갖춘 레인부츠를 선보이고 있다.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르샤모'는 1927년부터 수제 부츠를 제작해 온 레인부츠 전문 브랜드로 성인에서 아동까지, 스포츠에서 롱부츠까지 다양하며 가격은 17만~24만원대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대형마트 개장시간 앞당긴다

의무 휴업 매출손실 만회...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오는 22일 실시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부 대형마트들이 개장시간을 앞당겼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동광주점과 광주하남점은 오전 8시, 홈플러스 계림점은 오전 9시로 개장시간을 기존 10시로 유지한다.

하지만 광주지역 이마트(광주·광산·동광주·상무·봉선점)들은 개장시간을 기존 10시로 유지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광주지역 점포들은 수도권 점포들과 달리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 손실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개장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기

로 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들이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면 월 10%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유통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2일(일요일)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실시된다.

광주에서는 ▲이마트 광주·광산·동광주·상무·봉선점 5곳, ▲롯데마트 상무·수완·월드컵·첨단점 4곳, ▲홈플러스 광주하남점·계림·동광주점 3곳, ▲빅마트 진월·매곡점(롯데슈퍼 매곡점으로 운영 중) 2곳 총 14곳이 문을 닫는다.

전날에서는 여수와 목포지역 대형마트(이마트 목포·여수점 2곳, 롯데

마트 목포·여수점 2곳) 4곳이 쉰다.

지난 8일 첫 의무휴업을 실시했던 기업형슈퍼마켓(광주 16곳, 전남 2곳)들도 22일 대형마트와 함께 하루 동안 문을 닫는다.

광주에서는 ▲롯데슈퍼(두암·연제·매곡·문흥·봉선·신가6양산·운암·일곡·진월·첨단·풍암·금호점) 13곳과 ▲이마트에브리데이(금호·동림·일곡점) 3곳 등 총 16곳이 휴업을 실시한다.

의무휴업 일괄실시에 반발해 지난 8일 영업을 강행한 가맹점포 롯데슈퍼 노대점은 오는 22일에도 문을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서는 롯데슈퍼(목포 연산·하남점) 2곳이 문을 닫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전남 3월중 어음부도율 소폭 상승

3월중 광주·전남지역의 어음부도율이 전달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어음부도율은 33%가 0.18%포인트 하락한 반면 전남지역(0.18% → 0.38%)은 0.20%포인트 상승했다.

부도업체수(당좌거래점지 업체수)는 2개로 전달(3개)보다 1개 감소했으며 신설법인 수는 406개로 전달(425개)에 비해 19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0.51% → 0.

33%)이 0.18%포인트 하락한 반면 전남지역(0.18% → 0.38%)은 0.20%포인트 상승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코스피지수	1,999.86 (-4.67)
코스닥지수	501.92 (-1.71)
금리 (국고채 3년)	3.49%
원·달러 환율	1,138.10원 (+0.8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이젠 서·남해안 시대!

한국도로공사가 더욱 빠르게 안전하게 모십니다

서울

1,964개의 섬이 병풍처럼 펼쳐지는 다도해, 한폭의 그림같은 아름다운 녹차밭, 바람에 실려오는 대추 향의 고장-전라남도 소문난 인심과 맛의 고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포

광양

고속도로 개통[4월 26일]

목포 ↔ 광양

영암 학산 강진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길이: 106.8km | 폭원: 23.4m(4차로) | 주행시간: 65분

·거리단축: 146km → 106km ·시간단축: 130분 → 65분

2012 FI KOREAN GRAND PRIX 2012

2012 국제농업박람회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2012 KOREAN EXPO 2012 YESU KOREA